



‘예쁘다, 꽃 피운 산딸나무’ 18일 오전 제주시 용강동 한 도랏가의 산딸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행사성 사업 지원 취소 ‘후폭풍’ 불가피

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 마련위해 지출구조 조정 1200억원대 규모… 대면접촉 행사 전면 취소 원칙  
 도의회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 예산전쟁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1200억원대의 지출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예산전쟁’ 후폭풍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가 코로나19 대면접촉 행사성 사업 전면 취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출조정계획’을 각 부서에 공정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일방적, 행정편의적’이라고 질타했다. 재정운용 실패를 민간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도

민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 속 행사 취소·축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구조조정계획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됐다.

18일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의 지출조정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제주도로로부터 ‘행사 등의 전면 취소 및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문화·관광분야 등의 행사성 사업의 일률적 삭감은 안되며, 도민 소통을 통한 삭감 기준 등 합의를 찾아가야함을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오라동)은 “(행사성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서 간담회도 의견청취 시간을 가져봤느냐”면서 “이해당사자들이 하소연할데가 없다”는 등 소통 부족을 주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필수경비 등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등 행사성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기존 세출구조조정을 백지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2차 추경안이 7월 임시회에 올라올 경우 ‘예산전쟁’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경용 위원장(미래통합당, 서귀

포시 서흥·대륜동)도 “도민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 경제 위축으로 돌아가고 그 책임은 결국 지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비대면(무관중) 사업 전환시에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가감없이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정된 예산을 비대면 등 창조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문화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가칭 ‘문화복지기금’ 설치 추진,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제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돼야” 도의회 보건복지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제주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고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가칭)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5일 실시한 ‘안전 제주를 위한 감염병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안은 감염병 청정 제주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이라는 지

리적 여건으로 감염병 등이 발생하면 도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과 법정 감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위험지역이 되고 있다. 또 산업구조의 문제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가 지역경제 기반을 흔들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2019년 기준 1500만명)와 무비자 입국으로 해외관광객이 다양화로 해외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도 설치 필요성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고현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지청 등 설치 시 소외받는 제주도가 감염병과 질병만큼에서는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도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권역별 감염병대응센터 제주 설치의 필수”라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결의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에 발송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8억 부과

### 등록 차량대수 60만대 돌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1846건에 대해 317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5396건(1.7%)이 증가했으며, 부과금액도 4억 8400만원(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39억 7500만원, 서귀포시 78억 2400만원이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만 48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2058대(5.6%)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

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제주도는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시 728-2391-2393, 서귀포시 760-2331-2335). 이태윤기자

## 비상품감골 유통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도 관련조례안 입법예고 감골 강제착색도 1000만원

비상품 제주감귤을 유통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재 최고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감골 상품 기준은 온주밀감의 경

우 과실 크기는 49~71mm, 감골 무게는 53~136g 등이다. 온주밀감의 당도는 10브릭스, 극조생 온주밀감의 당도는 8브릭스를 각각 넘어야 한다.

만감류의 경우에는 한라봉 200g, 천혜향 150g, 레드향 150g, 황금향 150g을 각각 넘어야 상품 기준에 충족한다. 당도는 품목별 10~12브릭스 이상, 산 함량은 1.1% 이하이다.

또한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는 등의 행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적용된다.

품질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거나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용 감귤을 출하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운송업체나 유통업체, 지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바다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2020. 04. 13 - 06. 26

**공모요강**

**주제**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 (아름다운 경관, 바다환경 훼손 현장 등 제주 바다와 관련된 작품이면 모두 가능)

**응모기간** 2020년 4월 13일 ~ 6월 26일 18:00까지

**응모자격** 누구나 가능

**출품수** 그림부문 - 1인 1매  
 사진부문 - 1인 3점 이내(중복 수상 불가)

**출품료** 없음

**결과발표** 2020년 7월 수상자 개별통지 및 제주매일 지면

**공모분야**

구분	그림부문		사진부문	
	초등부	일반부	초등부	일반부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		
규격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8절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4절지		개별용량 2mb 이상 원본사진 3000pixel이상(jpg)	

**유의사항**

- 출품작의 초상권,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타 공모전 수상작, 유사작품, 합성/변형한 사진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 사진출품작은 공모전 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반드시 본인이 촬영한 것에 한함
-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됨
- 본 공모전에 응모 시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수상 수	
	그림부문	사진부문	그림부문	사진부문
대상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1	1
최우수상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50만원 상당)	4	2
우수상	상장 및 부상(10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30만원 상당)	6	3
장려상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10	5
입상	-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	30

※ 수상작은 제주바다사랑 공모전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접수안내**

**그림부문** 작품 뒷면에 제목, 그린날짜, 이름, 연락처 기재 후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진부문** 제주매일 홈페이지(www.jejumail.net)에서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해 직접 온라인 접수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37 제주매일 사업부

**E-mail** abcd@jejumail.net

**문의** 064-747-8111

제주매일에서는 제주바다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감각성 고취를 위해 ‘제주바다’를 주제로 그림·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